

“책 읽어주세요!” 신안 비금동초등학교, 북콘서트 개최

전교생 참여...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최·미디어북독 주관 행복한 독서 문화 가꾸기 위해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그림책 공연·뮤지션과 함께 동요 부르기 등 다양한 체험

신안 비금동초등학교(교장 김영완)는 9월 28일 27명의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책 읽어주세요!’라는 주제로 온종일 북콘서트를 가졌다.

신안 비금동초등학교는 2018년부터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꾸준히 가져오고 있으며 행복한 독서 문화를 가꾸기 위해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하고 미디어북독이 주관하는 ‘2020. 전국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읽어주세요! 체험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되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김준영 작가의 그림책 ‘할아버지와 손님은 답았어요’ 1인극 공연과 체험활동, 작가 사인회, 뮤지션과 함께 동요 부르기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전에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참여 중심의 북콘서트를 운영하였다.

‘재미있게 읽은 책 소개하기 및 그림책 읽어주기’, ‘독서퀴즈 골든벨’,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서로 나누었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참관하던 김00 교사는 작가의 1인극 공연을 보며 “주인공들의 마음이 느껴져 몽클했다.”며 눈물을 닦았고, 2학년 김00 학생은 “너무 떨리지만 해보고 싶었다.”며 맛깔스럽게 그림책을 읽어주어 친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였다.

6학년 김00 학생은 “그림책 작가님을 직접 만나 좋았다.” 또한 “가족과 나를 소개하는 책을 만들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며 환하게 웃었다.

김영완 교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데 진행되는 ‘찾아오는 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가뭇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고흥교육청, ‘창의융합 인재양성 프로젝트’ 성료

6주 동안 진행...발명·메이커 활동 통해 인재 양성 목적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희) 발명교육센터는 6주 동안 진행된 관내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융합 인재양성 프로젝트’ 1기·2기 과정을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창의융합 인재양성 프로젝트’ 과정은 발명·메이커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고흥의 발명·메이커 교육의 보편화를 지향하며, 고흥의 초·중학교 학생들을 미래를 이끌 우수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이 되었다. 초등학교생 25명(6개 학교), 중학생 16명(3개 학교)이 1기 과정에서 수료하였으며, 초등학교생 8명(2개 학교), 중학생 20명(3개 학교)이 2기 과정에서 수료

하였다.

1기 및 2기 과정에 모두 참여한 송호영(고흥중, 1학년) 학생은 “평소에 학교에서 접하기 쉽지 않았던 목공을 활용한 발명품 제작 체험, 코딩을 통한 피지컬 컴퓨팅 구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주말을 활용하여 할 수 있어서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다.

강사로 참여했던 발명교육센터 조태원 전담교사는 “평소 실시했던 발명일일체험과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외에도 관내 발명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초·중 학생들이 발명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강진교육청, 2학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 방안’ 모색

학습결손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 마련 위한 협의회 개최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채현)은 지난 9월 28일 강진 관내 초·중 28교 교감 및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협의회를 통해 2020학년도 강진 관

내 초·중학교의 기초학력 도달 현황을 점검하고, 단위학교 학습결손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 날 논의된 2학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기초학습(3R'S) 미도달 학생 지원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능 강화 ▲지원청 단위 기초학력 보장 지원단 협의회 정례화 ▲면 단위 중학교 야간 공부방 운영학교 네트워크 활성화 ▲대학생 멘토링 2학기 중 연장 운영 ▲중학교 학생 대상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역 인적자원 활용(재능기부, 대학생 교육봉사) ▲지역사회 유관 기관 마을학교와 연계한 지원 강화 등이 있다.

이번 협의회에 참여한 강진중앙초 소속 문해력 전담교사는 “학습 부진 현황이 비슷한 학교 담당자들끼리 모여 현장 지도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조기 개입과 개별 맞춤형 지도가 관건인데 이를 위한 학교와 지원청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진교육지원청은 추석 명절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별 3R'S 미도달 학생의 학습이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주축으로 학생별 부진 유형과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주시교육청,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영상 공모전’ 실시

내달 각각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작품 선정해 발표 예정

광주시교육청이 ‘2020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영상 공모전’을 9월28일~ 10월27일 실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환경에서 참신하고 특색 있는 영상 창작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의 주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고,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초·중·고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작품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3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우수상에게는 교육감표창과 1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장려상에게는 교육

감 표창과 5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교육청재난안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시교육청 현경식 안전총괄과장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학교 안전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